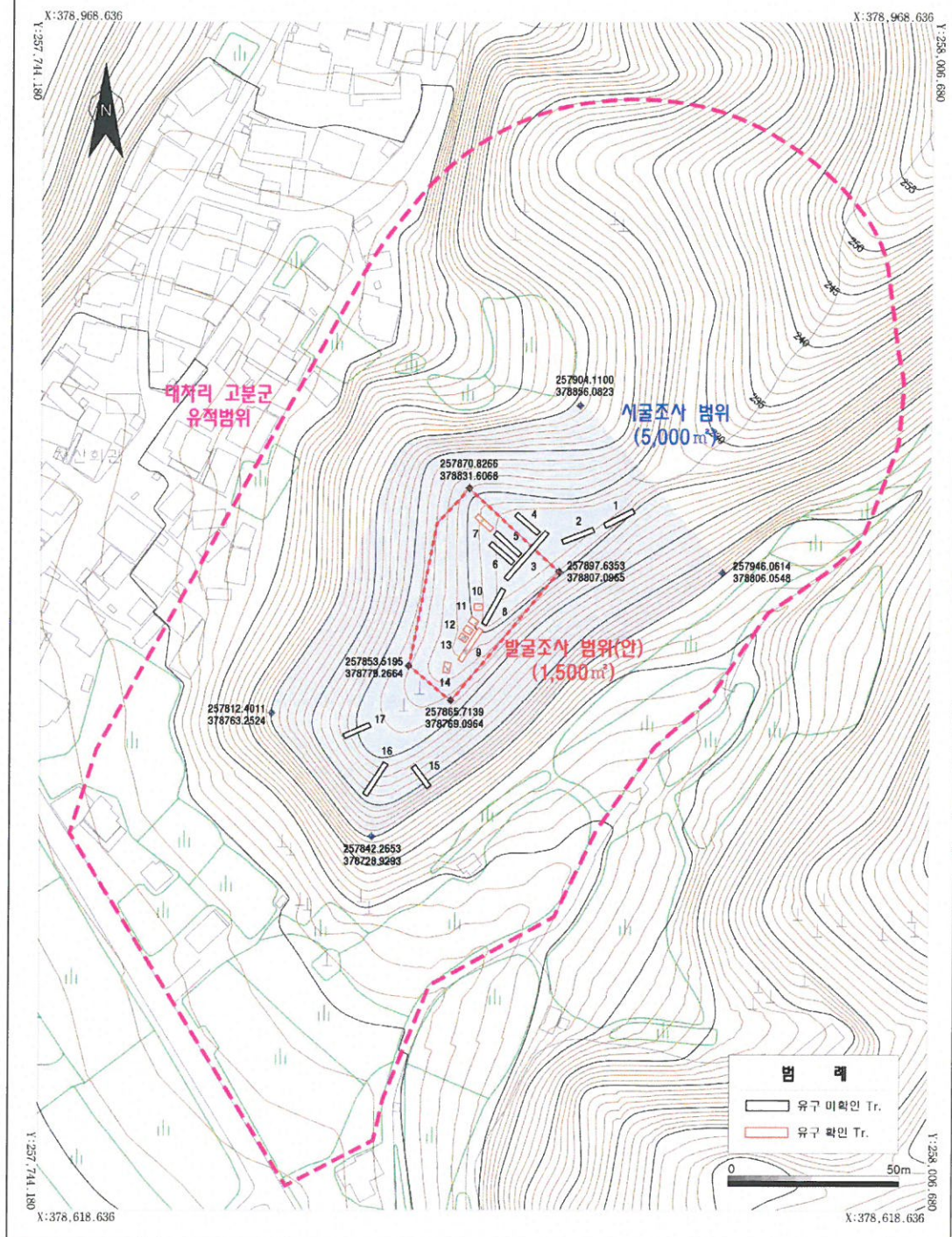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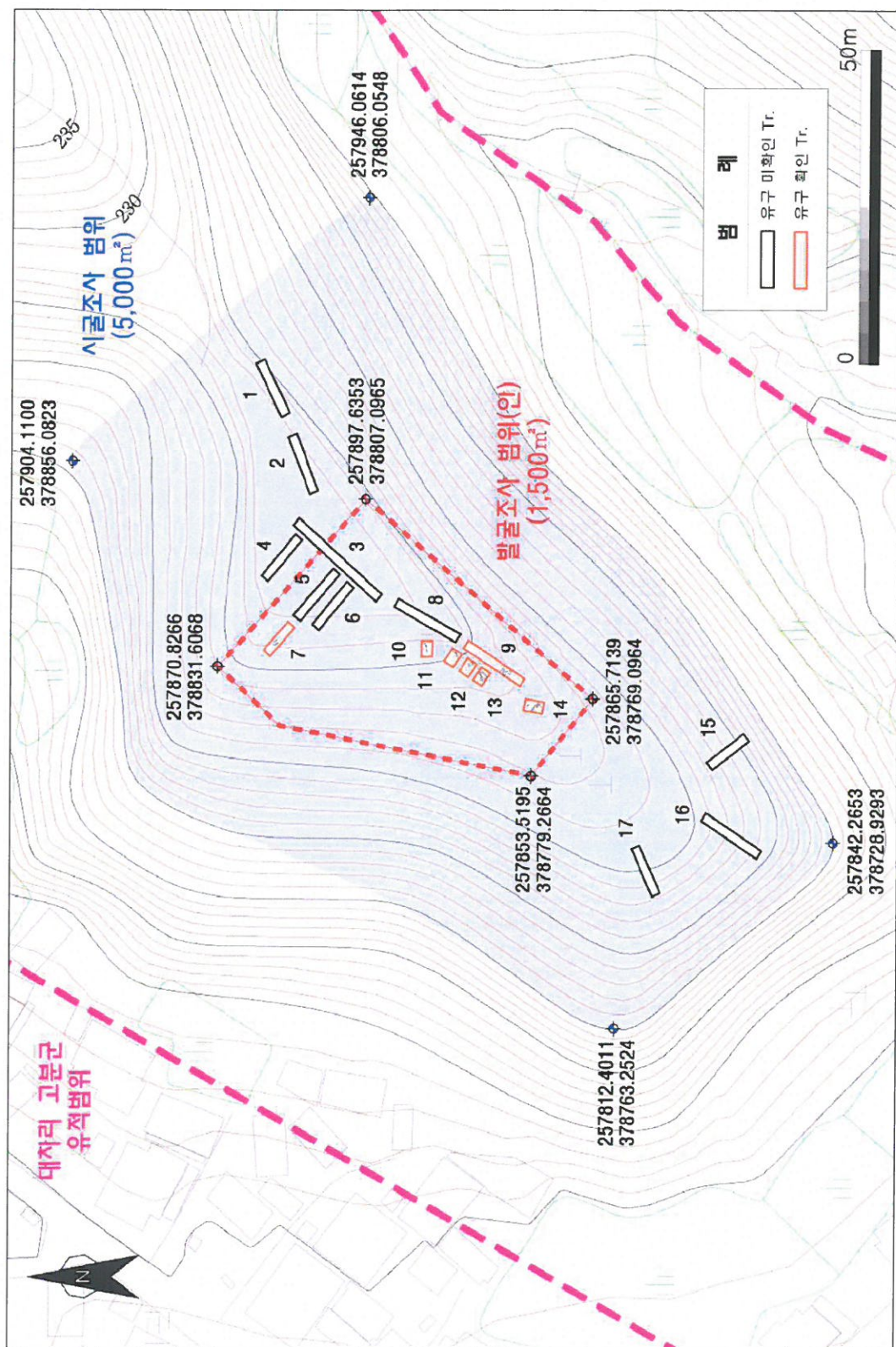
무주 대차리 고분군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무주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현황도

S = 1/1,500



무주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현황도면(1:1000/GRS80)



무주 대저리 고분군 시굴조사 현황 확대도면(1:1000/GRS80)

Ⅲ. 조사내용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향로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말단부(해발 210~227m)에 위치한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무주읍 대차리 산46번지 일원으로, 유적에서 남쪽으로 6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남대천(南大川)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본격적인 시굴조사에 앞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근거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다. 시굴조사에 할애된 실 조사일수는 총 5일로, 먼저 조사대상지역에 대해 잡목을 제거한 뒤 측량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기록하였으며,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수습하였다. 조사구역 내에 트렌치를 구획한 후 본격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층위관계 및 유구의 부존여부를 파악하였다. 유구가 노출될 경우 원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리를 실시한 후 사진, 도면, 원고 등을 통해 현상을 기록하였다. 출토된 유물 역시 원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추후의 훼손 또는 유실의 위험이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일부 수습하였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대차리 고분군 주변의 경작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삼국시대 유물이 출토되었고, 고분군에 도굴꾼이 자주 드나들어 유적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한다.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지표조사 당시, 원지형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를 중심으로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천석(川石)과 삼국시대 토기편이 상당량 확인되어 조사단에서는 이 지역(5,000㎡)을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표에서 봉분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육안으로 찾아볼 수 없고 한정된 시간 내에 조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유구의 부존여부를 최대한 파악해야했기 때문에 트렌치법을 적용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상부와 서쪽 사면부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서남-동북, 서북-동남방향으로 폭 1.5m의 트렌치를 총 17개를 구획한 후 내부조사를 실시해 유구의 부존여부를 파악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구릉의 정상부에 구획된 1~6, 8트렌치에서는 부엽토(표토)를 10~20cm 가량 제거하자 풍화암반토와 석비레층이 바로 노출되어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표에서 고분의 벽석과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본래 정상부에도 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드러난 풍화암반토와 석비레층 상면이 고르게 다듬어 진 것으로 보아 주변의 수목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서쪽 사면부의 7, 9~14 트렌치 내부에서는 석곽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30~40cm 내외의 천석 또는 할석(割石)을 가로로 쌓아 조성된 석렬이 총 7기(1~7호 석곽) 가량 드러났는데, 아직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세장방형의 일정형태를 띠는 것으로 볼 때,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된다. 6, 7호 이외의 나머지 석곽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내부에서 광구장경호 등 삼국시대 토기(편), 철검 등의 유물이 상당량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2호와 7호 석곽은 천석으로 벽석이 조성된데 반해, 그 밖의 석곽은 할석으로 조성되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장축방향 역시 각 고분마다 다르고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향후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 유구 내부에 드러난 유물, 고분의 입지 등으로 보아, 유적은 대체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성격 및 조성주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삼국시대 고분은 산줄기의 정상부보다는 서쪽 사면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7, 9~14 트렌치)에서 주로 조사되었다. 정상부 중 시굴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지역에 고분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밀발굴조사는 산줄기 서쪽 사면과 정상부 일부를 포함한 지역(1,500㎡)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시굴조사 현황도면 참조). 또한 산줄기 서남쪽 하단부와 동남쪽 사면부에 지표에서 도굴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리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 위성사진(문화재청 인트라넷 시스템 제공)



무주 대차리 고분군 원경(①) 및 개토제 광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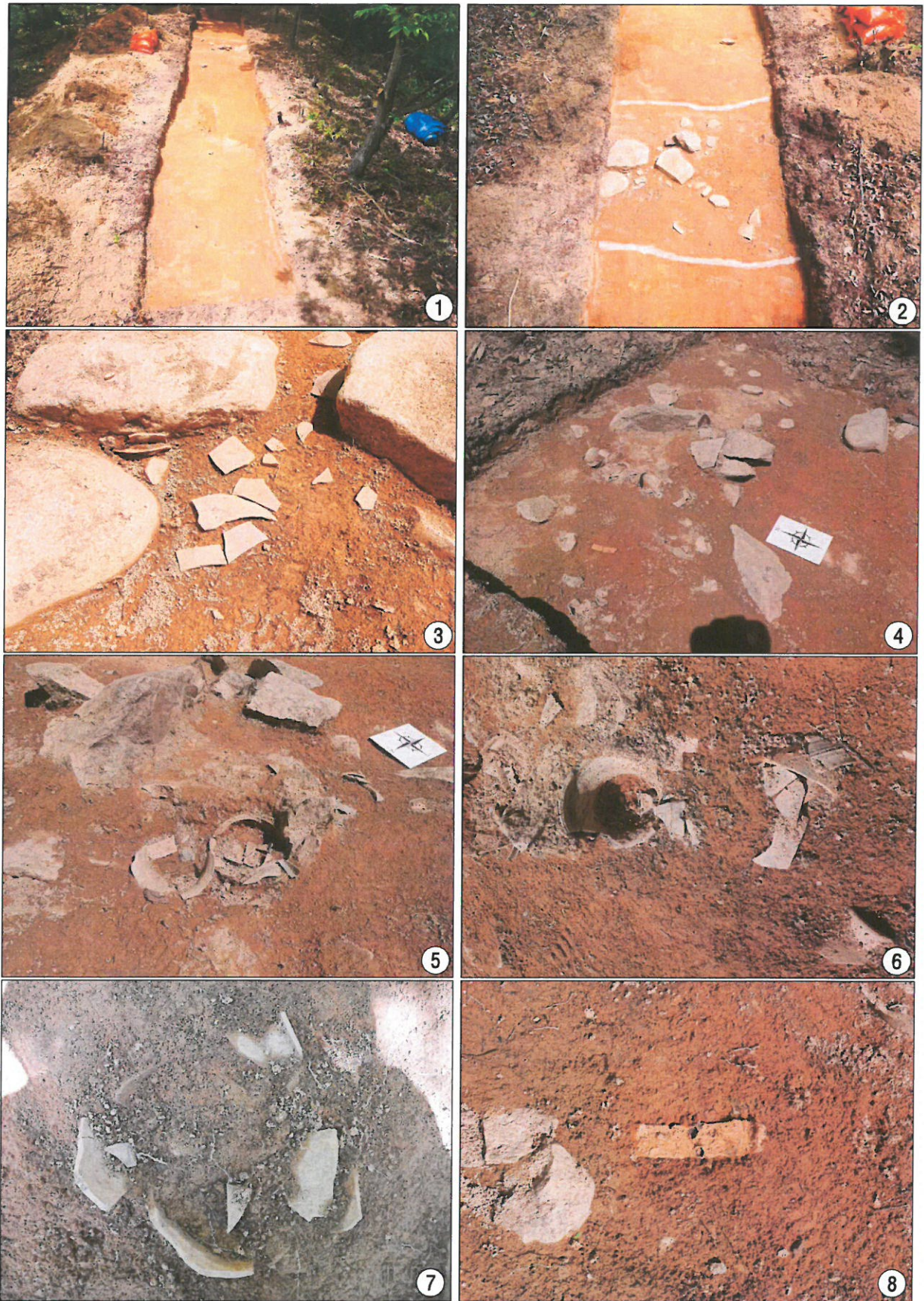
무주 대차리 고분군 동북쪽 조사 전(①), 서남쪽 조사 전(②)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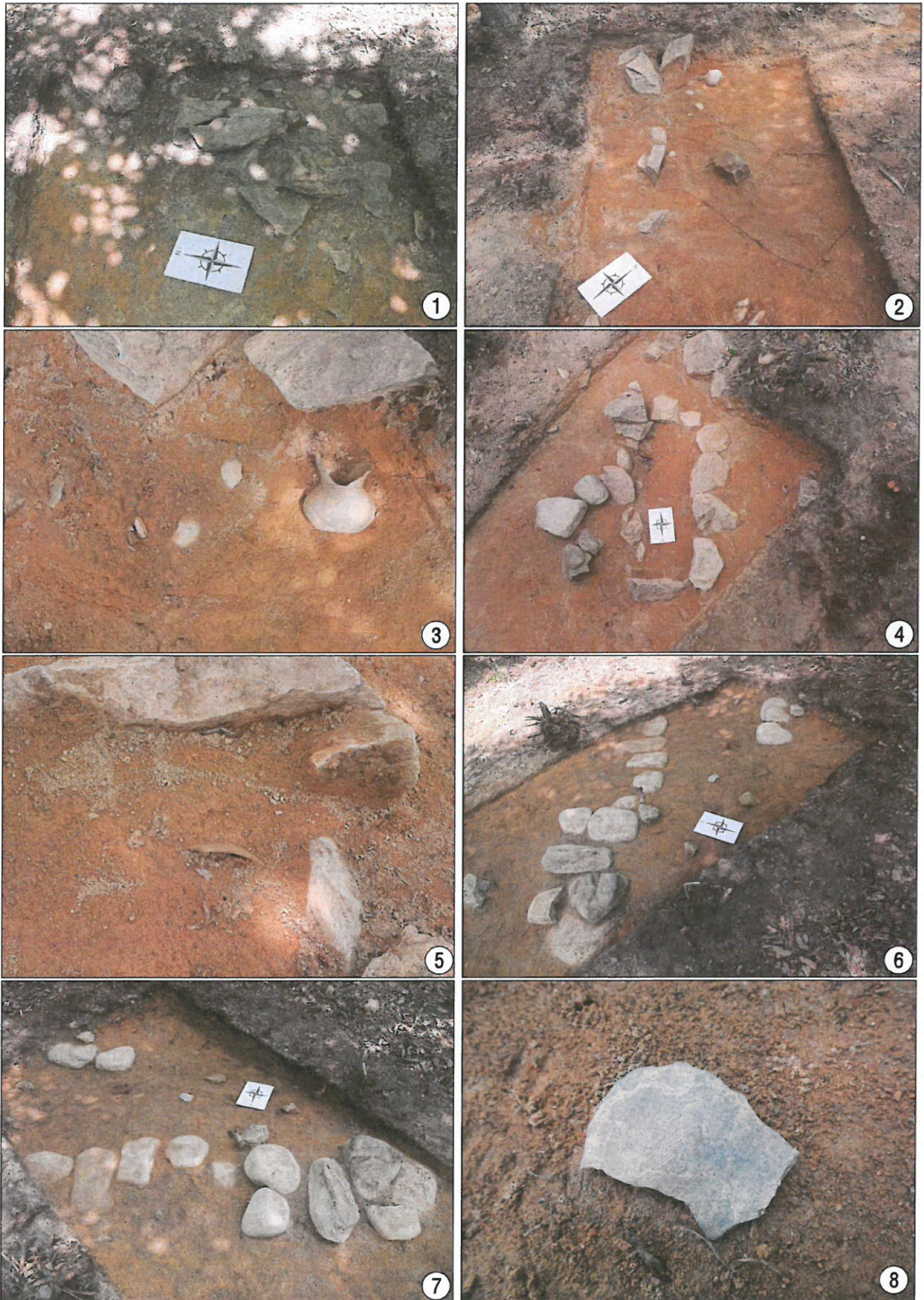
무주 대차리 고분군 서북쪽 조사 후(①), 동북쪽 조사 후(②)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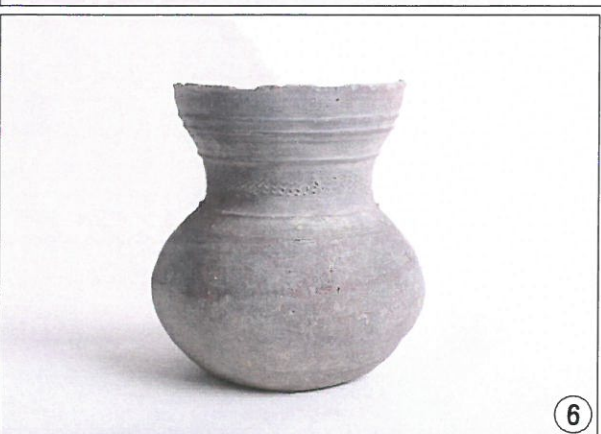
1~6, 8, 15트렌치 조사 후 전경



9트렌치(①~③), 10트렌치(④~⑧) 내 확인 석곽 및 출토유물



11트렌치(①), 12트렌치(②·③), 13트렌치(④·⑤), 14트렌치(⑥~⑧) 내 확인 석곽 및 출토유물



시굴조사 광경(①~④) 및 수습유물 일괄(⑤~⑦)

I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 금번 시굴조사는 고분군이 위치한 산줄기 정상부와 서쪽 사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분군의 부존여부 및 유적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파악되었다.
- 시굴조사 결과, 정상부는 일부 삭평되어 고분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나, 서쪽 사면부를 중심으로 석곽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총 7기 가량 확인되었다.
- 지표 및 유구 내부에서 수습된 토기(편)으로 볼 때, 고분군은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라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가야토기도 수습되었다.
- 고분은 천석 또는 할석으로 조성되었으며, 대체로 벽석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부에 상당량의 유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상당량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유구가 드러난 서쪽 사면부와 정상부 일부를 포함한 범위(1,500㎡)에 대하여 유적의 조성시기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추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분의 분포여부를 추가로 파악해야한다.
- 그동안 무주는 가야, 신라, 백제의 각축장으로 삼국시대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왔다.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의 고고·역사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시굴조사와 향후의 발굴조사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유적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